

투명 재정·인재 양성... 개혁 과제 '한마음'

조계종 100인 대중공사, 어떤 사안 논의했다

"출가 수행자의 본분의 자리를 찾아가야 합니다.", "종단·사회적으로 따를 수 있는 스승이 없습니다.", "스님들은 정치에는 가담하지 말아 주세요."

한국불교 발전을 위한 사부대중의 생각은 비슷했다. '종단 혁신과 백년대계를 위한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가 진행된 1월 28일 한국문화연수원은 120여 대중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에서 위원들은 사찰 재정 투명화와 인재발사, 승가 신뢰 회복 등을 주요 과제로 뽑았다.

10개 모듈로 진행된 분임토의에서는 다양한 문제제기들이 이뤄졌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불교 개혁부터 승가 문제까지 현안을 포괄적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자승 스님은 "현재 스님들은 좌복 위에서 죽을 각오로 수행하거나 길 위에서 죽을 각오로 포교를 해야겠다는 서원이 없다. '상구보리 하화중생' 하며 죽겠다는 의지가 없다. 소위 '중(僧) 정신'이 부재한 것"이라며 "이것은 선배들이 전해주지 못한 것이다. 이런 풍토를 변화해 가는 것이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결사라는 씨앗은 당장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0, 20년이 지나야 열매를 맺고 먹을 수 있는 것"이라며 "100인 대중공사는 결사를 다지기 위한 자리가 될 것"

이라고 덧붙였다.

성태용 건국대 교수는 승가교육제도에 대해 지적했다. 성 교수는 "승가교육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 특히 승가대학원은 증가가 있지만 내실있는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친절함을 동반한 포교가 이뤄져야 한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목종 스님은 "도심 포교장을 운영하다보면 전단지 4만장을 배포해도 전하는 50통도 오지 않는다"면서 "전

대한 문제를 분석하고 있다. 종단이 자성과 쇄신 결사를 오래했지만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 집행부의 적극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00인 대중공사가 성공하려면 또한 위원들은 성실한 논의를 통해 정해진 의제들에 대한 현실적 대안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성문 스님은 "반드시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는 성공해야 한다. 이것이 실패하면 국민과 불자, 종도들은 등을 돌릴 것"이라며 "우리 자신도 자정 능력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를 넘어설 수 있도록 대중공사를 통해 공의를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00인 대중공사가 풀어야 할 숙제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정치적 이벤트'라는 지적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성실한 논



조계종이 1월 28일 개최한 '종단 혁신과 백년대계를 위한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 출범식 모습. 이날 참가자들은 분임토의와 전체회의를 통해 종단이 해결해야 하는 의제 8가지를 정했다.

의와 도출된 방안을 현실에 적용해 실제적 성과를 보일 수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100인 위원들의 원활한 참여와 반대 진영 측 인사를 공의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 중앙종회의원 당

연직 참가자로 이름을 올린 종책 모임 삼화도량 소속 의원들은 대중공사에 참석하지 않았다.

직지사 주지 흥선 스님은 4모듈 토론에서 "100인 위원에 참여하는 대중의 범위를 충분히 검토했는지 의문"이라며 "구성원 조정이 필요하다. 추후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을미 새봄
立春大吉
福慧具足



정혜숙 기자

그림 수안 스님, 배포 생명나눔실천본부

'나눔과 전법' 제2 불광운동 전개

불광사, 바라밀 공동체 구성 바탕 10대 중점과제 제시

개방형 도서관·어린이집 개설
해외포교 위한 영어 <불광> 발간
국제구호 및 봉사연등 조직 강화



의 거점으로 자리매김 할 것을 밝혔다. 불광사 방문의 날 제정하고 지역 사회에 사찰시설을 대관하기로 했다.

서울 불광사(회주 지흥·사진)가 바라밀 공동체 구성을 목표로 한 제2의 불광운동을 전개한다. 불광사는 1월 3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2불광운동을 천명했다.

제2불광운동은 사찰서원과 사찰제 정신에 바탕을 둔 4대 기조에 보현보살의 십바라밀에 근거한 10대 중점과제로 이뤄져 있다. 또 법장 스님의 48대원에 바탕한 48개 세부과제로 이뤄져 있다. 불광사는 '사상', '법회와 사찰', '전법과 호법', '사회와 봉사', '승가와 수행공동체', '복지와 수행공동체', '지역활동', '교육과 연구', '통일과 세계'라는 10가지 활동분야를 설정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전개해 나간다.

먼저 눈길을 끄는 것은 지역사회 역량 및 전법활동의 강화다. '법회와 사찰' 과제로 봉사 법도 활성화, 바라밀 기도결사, 법사단 운영, 국내외 불광 지원개설, 산하기관 불광인상 시상, 목적사업 위한 영리법인 설립 등이 제시됐다.

'사회와 봉사' 과제로는 불광제나눔센터 및 불광나눔재단 설립, 다문화 가정 및 가정행복 지킴이 사업 전개 등이 담겼으며 '인행공동체' 과제로는 승가복지시설 및 제도 마련과 불자 종합복지타운 설립, 노인 돌봄이 제도 구축과 운영, 임종친도 프로그램 구축, 불광엘로우북 발간 및 나눔바자회 개설 등 실천방안이 우선 순위를 채택됐다.

또 지역민을 위한 도서관을 운영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추가로 개설해 교육

이 함께 하는 문화를 구축해 불교의 생활화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불광사가 진행해 온 전법활동도 크게 변화한다. 먼저 전법대이터 구축을 포함해 광덕 스님 육성법어 디지털 콘텐츠화, 불광운동 연구 및 학술사 정리 등이 진행되며 '교육과 연구' 실천방안으로 불광교육원을 인문교육 중심으로 육성해 다양한 명상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수행원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문화와 미디어' 실천방안으로 영문판 <불광> 창간하고 불광미디어도 새롭게 재편하기로 했다.

끝으로 '통일과 세계'에서는 새터민 지원사업과 국제구호사업, 해외불교기관과 학술교류 등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불광사 회주 지흥 스님은 "새 불광법당 중앙봉사단 비서체제였던 업무가 다시 안정을 찾았으며 불광 창립 40주년 행사도 무사히 마친 지금이 새로운 불광운동을 펼칠 때라고 생각했다"며 "바라밀공동체를 건설하고자 하는 불광사 대중들의 마음이 모인 결과"라고 소개했다. 지흥 스님은 이어 "제2의 불광운동으로 한국불교 역사에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갈 것"이라며 "광덕 스님의 원력을 이어 새로운 100년을 향해 힘차게 정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세월호 도보행진

불교계도 함께

노동위 재마·도철 스님 동참

세월호 유가족이 온전한 세월호 인양과 실종자 수습 및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19박 20일 동안 도보행진에 나선다. 1월 26일 안산합동분향소를 출발해 2월 14일 진도 백복항에 당도한다.

도보행진에는 조계종 노동위원회(위원장 혜용)도 5박 6일간 동참한다. 1월 29일은 노동위원회 노동위원 재마 스님이 함께하며, 1월 30일부터 2월 3일은 노동위원회 노동위원 도철 스님, 양한웅 집행위원장을 포함한 노동위원 등이 동참한다. 2월 14일 열리는 추모 문화제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1월 29일 오전 8시 천안 성환역에서 출발한 세월호 도보행진단 120여명의 모습

복지 종합센터 건립 등 역량 강화 나선다

조계종복지재단 신년간담회
설립 20년 중장기 전략 내보

오는 6월 20주년 기념 행사
'사찰 복지 공동체' 세미나도
사무국·현장 순환 근무제 확립



구현하기 위한 사업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재단은 20주년에 발맞춰 불교복지 위상제고와 외연확대를 위한 중장기 발전 전략을 제시할 계획이다. 불교계 복지사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격인 불교복지종합센터와 불교계 인재양성시스템 마련을 위한 복지대학원대학교는 대략 5년에 걸쳐 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20주년 기념행사는 올 6월 경 열릴 예정이며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한 사찰복지공동체'를 주제로 학술 심포지엄도 계획돼 있다.

불교복지 특화사업 육성을 위한 긴급재단 불교복지 특화사업 육성을 위한 긴급재단

구호, 나눔문화 확산, 국제개발협력에 힘을 쏟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재단은 국내외 각종 재난 발생시마다 신속히 대응하고 있는 조계종 긴급재난구호봉사단을 통한 재난재해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불교계 나눔문화 확산에도 나설 예정이다. 불교계 국제개발협력 단체 9개가 참여하는 통합협의체도 3월 중으로 발족한다.

이어 불교복지 연구개발 기능 강화를 위해 기후변화 대응체계 마련 등 재난 선도 복지정책 의제 생산기능을 강화하고 불교복지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고 확산한다.

내부적으로는 복지 인재발사를 위해 재단 사무국 직원들과 산하 복지시설과의 순환근무 체계를 확립해 복지현장 체험을 재생산 해낼 수 있는 방안을 확립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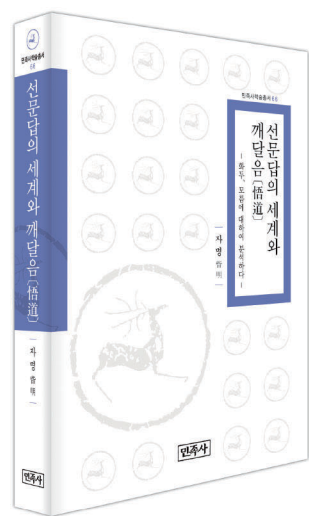
보경 스님은 "사무국 따로 복지시설 따로 되어서는 안 된다. 복지현장을 몸소 체험하는 신하방운동(下放運動) 형식의 사무국 운용체계 혁신을 통해 인재발사를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배현진 기자

좌선하다가 깨달았다는 선승은 없다.
선문답을 통하여 깨달았다!!

—일상적인 언어로 간화선의 핵심 주제들을 분석하다.

고봉 원묘와 몽산 덕이는 정통 간화선이 아니다.
지금의 한국 선은 고봉선, 몽산선이다.



선문답의 세계와 깨달음(悟道)

-화두, 모름(不會)에 대하여 분석하다-

■ 자명해매 지음 | 464쪽 | 25,000원 | 신국판 양장

자명 스님: 1958년 대구 출생. 1977년 경북고 졸업, 서울대학교 입학. 1979년 해인사로 출가. 1980-1988년 벽송사, 봉암사, 광림사, 정전암 등 계방 선원에서 정진. 2011년 동국대학교에서 「선문답을 통한 수행법연구」로 박사학위 받음.



이평래 교수의 대승기신론 강설

여래장사상을 연구한 이평래 교수가 평생을 바친 역작!!

여래장사상의 완결서!!

1.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의역
2. 친절한 용어 해설로 내용 이해
3. 도표를 통해 대승기신론의 세계를 알기 쉽게
4. 인간의 내면세계를 긍정적으로 서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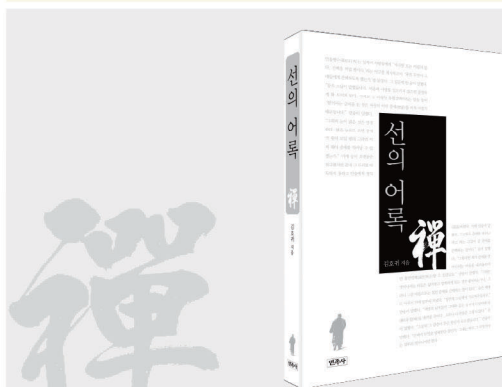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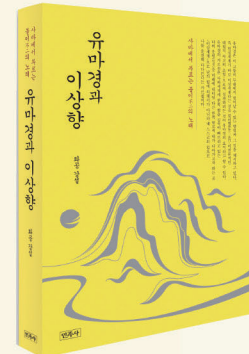
■ 이평래 강설 | 624쪽 | 29,500원 | 신국판 양장

사마에서 부르는 불이(不二)의 노래

불교의 핵심·진수가 담겨
단 한 권의 경전으로 손꼽히는
유마경의 세계를
드라마틱하게 펼쳐 놓았다.

유마경과 이상향

■ 화공 강의 | 604쪽 | 29,500원 | 신국판 양장



선의언어록

중요한 선어록과 선 경전(禪經典)의 친절한 해설서!!

禪의 주요 경전인 수행도지경, 좌선삼매경, 유마경 등 16종과 중국 선어록의 핵심 입제록, 마조어록, 벽암록 등 30종과 한국의 선어록 26종을 망라하여 완벽 해설!

■ 김호기 지음 | 336쪽 | 18,000원 | 신국판 양장